북한 잡지의 남한 사회문제 보도*

이주철(KBS 남북협력기획단 박사연구원)

1. 머리말

해방과 분단이 되면서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를 성립시키고, 경쟁을 해왔다. 끊임없이 상대방 체제에 대해 공격적인 비판을 해왔으며, 이 과정은 남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진행한 남한에 대한 비난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남한체제의 단점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과장해 왔으며, 북한 내에서는 제도적 통제를 통해 남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남한에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는 유통될 수 없었다. 1980년대 후반에 남한사회에서 진행된 ‘북한바로알기’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언론 통제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남한사회의 민주화 진전이 만들어낸 이슈였다. 하지만 남한과는 달리 이 시점에도 북한정권은 강력한 독재권력을 통해 외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유통

* 본고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북한의 남한연구’ 과제의 한 부분이다.

통을 금지해왔다. 따라서 북한에서 진행된 남한에 대한 보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치나 경제 등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특히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해 북한정권은 매우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남한의 사회문제가 자본주의체제의 보편적 모순과 남한사회의 특수한 문제들이 함께 얽혀 있어서,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남한을 비난하고 북한체제의 정당성 선전에 활용하기 매우 용이한 부문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남한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북한의 잡지들을 중심으로 남한의 사회문제를 북한정권이 어떻게 서술하고 북한주민에 전달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이 주목한 남한 사회문제의 시기별 특징과 내용상의 특징, 보도의 목적과 동기, 추세와 패턴(경향), 활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북한의 남한 사회문제 보도 현황

1) 보도 현황

(1) 잡지별 자료 현황 분석

이번에 구축된 DB의 총수는 5,728개이고, 그중에서 남한의 사회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잡지의 글은 494개(8.6%)이다. 이번 DB 작업이 진행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부문 중에서 사회문제는 남한국내정치(13.3%), 통일(12.9%), 남한정치 기타(9.5%), 남한정치 국제관계(9.1%)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¹⁾ 이것은 북한정권이 남한

<표 1> 잡지별 남한 사회문제 분류

	사회문제 자료 수	사회문제 DB 합계 중의 비중(%)
『남조선문제』	326	64.4
『근로자』	22	4.3
『김일성종합대학학보』	3	
『력사과학』	5	
『조선녀성』	106	20.9
『국제생활』	7	
『인민교육』	8	
『교원선전원수첩』	8	
『조선사회민주당』	4	
『인민』	2	
『남조선문제논문집』	1	
『조선예술』	1	
『사회과학논문집』	1	
단행본	12	2.4
총계	506	

의 사회문제에 다른 어느 부문에 못지않은 관심을 집중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간행물 중에서 남한의 사회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간행물은 『남조선문제』와 『조선녀성』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의 이론잡지인 『근로자』는 남한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 관심의 대부분을 남한정치와 남한경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은 사회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남조선문

- 1) 이번 DB는 정치(법, 제도/국내정치/국제관계/군사/통일/남한혁명전략/기타), 경제(경제체제/부문경제/산업), 사회(사회운동/사회문제/교육/여성/사상), 문화(문화일반/문학/예술/언어/기타),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제』와 『조선여성』, 그리고 사회문제 관심 비중은 작지만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론잡지인 『근로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인민교육』과 『력사과학』이 남한의 사회문제에 보인 관심의 비중은 작지 않지만, 그 DB의 전체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다.

(2) 주요 잡지의 남한 사회문제 보도현황 분석

사회문제의 종류는 일정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대적·지역적 조건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자체로서 분류하고 유형화하기가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노동문제·토지문제·실업문제·인구문제·인종문제·민족문제·도시문제·농촌문제·주택문제·청소년문제·여성문제·노인문제·가정문제·범죄문제·비행문제·매음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결함이나 모순을 시정하여야 한다.

남한의 사회문제도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빈곤문제, 실업 문제, 주택 문제, 노동문제, 공해 문제, 보건문제, 여성문제, 청소년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발간한 각 잡지의 자료에서 빈도가 높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분류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사회문제인 빈곤문제, 노동문제, 보건문제, 공해문제, 여성문제, 종교문제, 범죄문제, 인권문제 등과 더불어 매춘문제, 해외입양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또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문제로 보지 않지만, 북한이 비난하는 문제인 생활양식 변화 문제나 인력수출문제도 사회문제 분류에 포함하였다.

① 『남조선문제』²⁾

<표 2> 『남조선문제』 남한 사회문제 분류

	65	66	67	68	69	70	계(%)
DB 등록전체 권수	1	2	4				7
빈곤			1				1(12.5)
노동		1	1				2(30)
보건/공해	1/						1(12.5)/
여성		1					1(12.5)
생활양식/종교/매춘		1//	/2/				3(37.5)
이민,인력수출/입양							
인권/부패/사고/범죄							
문건 총계	1	3	4				8(10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계(%)
DB 등록전체 권수	2	0	9	4	5	5	7	12	0	11	55(권)
빈곤	1		2	3	1	2	2	11		9	31(28.2)
노동			2		3		1	9		10	25(22.7)
보건/공해	1		1/1		/1			3/1		/1	5(4.5)/4(3.6)
여성				2			1	1		3	7(6.4)
생활양식/종교/매춘			/2/		1	/1/1	1/1/	2/2/		1	5(4.5)/6(5.5)/3(2.7)
이민,인력수출/입양					1/	/1	2	1/1		1	5(4.5)/2(1.8)
인권/부패/사고/범죄						1/1/	1/1/	2/2/		1	5(4.5)/4(3.6)/4(3.6)/4(3.6)
문건 총계	2		8	5	7	8	10	41		29	110(100)

	81	82	83	84	85	86	87	88	계(%)
DB 등록전체 권수	9	9	12	9	12	6	4	4	65(권)
빈곤	8	5	6	6	9	2	3	1	40(27.6)
노동	2	6	5	5	2	1	2		23(15.9)

2) 이 잡지에서 정리된 DB는 326개이지만, 주제와 내용이 뚜렷한 DB 263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보건/공해	3/2	6/2	2/1	2	1/2	1/1	1		16(11.0)/8(5.5)
여성	2		1	1	2	2		1	9(6.2)
생활양식/종교/매춘	1//	1//1	//1	1//	1//2	1//1			5(3.4)//5(3.4)
이민,인력수출/입양	1	2/1	1/1		1/1				5(3.4)/3(2.1)
인권/부패/사고/범죄	1//1 /2	1//1 /3	3//1 /4	2/1	1/2 /2/2	//1/2		1	9(6.2)/3(2.1)/ 6(4.1)/13(9.0)
문건 총계	23	29	26	18	28	12	6	3	145(100)

이번 DB작업에서 사용된 1960년대의 『남조선문제』를 남한의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기본적인 양이 너무 부족하다 (글 8편). 이런 이유로 자료가 일정 분량 이상이 포함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한다.

1970년대에 발간된 『남조선문제』 전체 120권 중에서 약 반절인 55권을 DB화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글을 분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구하지 못한 책자를 포함한다면 약 두 배에 달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분석은 곤란하지만, 매 권마다 약 2편의 글이 남한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사회문제 중에서는 대체로 남한의 빈곤문제와 노동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글의 비중은 50.9%에 달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외에 보건문제, 해외입양문제, 매춘문제 등도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한사회를 대하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빈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사회문제로는 여성문제, 남한의 종교와 공해문제를 비난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

은 비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기생관광’ 등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춘과 남한사회의 각종 범죄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 외에 특징 있는 부분은 남한의 인력수출과 인권문제 등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북한이 ‘민족주체성’이란 관점에서 남한을 비난하고 선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1980년대(1981~1988년)에 발간된 『남조선문제』 96권 중에서 이 DB에 분류된 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65권으로 전체의 67.7%에 이른다. 여기에는 남한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글이 145편 실려 있는데, 각 권별로 약 2.2편의 글이 실려 있는 셈이다. 이 글들의 주제는 남한의 빈곤문제와 노동문제가 43.5%로, 1980년대에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관심은 빈곤문제와 노동문제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문제(11.0%) 등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양적으로 비교하면 1980년대에는 빈곤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글의 비중이 1970년대에 비해 감소한 것을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적시하는 것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남한경제의 성장을 부분적으로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대신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문제에 대해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부분에서는 1980년대 초 남한의 민주화과정에서 빚어진 사회갈등을 반영하여 남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이 1970년대 비하여 증가하였고, 특히 남한사회의 범죄에 대한 비난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문제와 같이 남한사회에서 개선된 문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남한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을 전체로 보면, 『남조선문제』는 남한의 사회문제 중에서 빈곤문제를 27.8%, 노동문제를 18.8%, 보건문제를 8.2%, 범죄문제를 6.7%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 네 가지 사회문제에 61.5%의 비중을 주고 있는데, 모두 남한사회의 빈곤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다. 특히 외국문화의 유입, 인력수출이나 해외입양, 매춘(특히 외국인 관광매춘) 등 개방된 남한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② 『조선여성』

<표 3> 『조선여성』 남한 사회문제 분류

	53	54	55	56	57	58	59	60	62	63	64	65	계(%)
DB 등록 전체 권수	2	1	1	1	1	1	1	3	1	2	1	2	17
빈곤	2			1		1	1	1	1	2	5	3	17(60.7)
여성		1	1		1		1	2		3	2		11(39.3)
노동													
보건/공해													
생활양식/ 종교/매춘													
이민, 인력 수출/입양													
인권/부패/ 사고/범죄													
문건 총계	2	1	1	1	1	1	2	3	1	5	7	3	28(100)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계(%)
DB 등록 전체 권수	6	5	4	5	3	5	2	4	1	2	2	1	40
빈곤	6	4	3	3	3	5	1	2	1	4		1	33(58.9)
여성		1		2	1	1	1				2	1	9(16.1)
노동	1		1										2(3.6)
보건/공해		1	/1	/1	1	1		1/1		1			8(14.3)
생활양식/종교/매춘													
이민, 인력 수출/입양	/2	1				1							4(7.1)
문건 총계	89	7	5	6	5	8	2	4	1	5	2	2	56

	1991	1992	1993	1996	1998	2000	2002	2004	2008	2009	계(%)
DB 등록 전체 권수	1	1	4	1	1	1	1	2	3	5	12
빈곤	1		1			1					3(13.6)
여성		1	3	1	1		1	2	3	4	16(72.7)
노동											
보건/공해	1		1								2(9.1)
생활양식/종교/매춘											
이민, 인력 수출/입양											
인권/부패/사고/범죄										1	1(4.5)
문건 총계	2	1	5	1	1	1	1	2	3	5	22

이번에 정리된 『조선여성』 DB작업에서 1950~1960년대에 발간된 17권은 권당 1.65편의 남한 사회문제 관련 글을 싣고 있다. 그리고 이 글들은 모두 남한의 빈곤문제와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1979~1990년에 발간된 『조선여성』 40권에는 남한의 사회문제를 다룬 56편

의 글이 실려서 권당 1.4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0년대에는 12권에 22편의 글이 실려서 권당 1.8편의 글이 실려 있다. 따라서 『조선여성』에는 권당 평균 1.54편의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글이 실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50~1960년대의 글이 대부분 남한의 빈곤문제와 여성문제만을 다루고 있는데, 여성문제의 대부분은 여성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1980년대의 글들은 약 60%의 글이 빈곤문제를, 그 외에 여성문제 16.1%, 보건문제 14.3% 비중으로 나뉘어 있다. 그 외에 여성 인력 수출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성문제를 여성의 노동문제에 무게를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이 1980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진행된 공해문제, 인력 수출을 다루고 있고, 어린이 해외입양 문제도 비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문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빈곤이나 보건문제도 조금씩 다루고 있다. 여성문제는 빈곤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선여성』이 다루는 남한의 사회문제는 여성의 빈곤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여기에 어린이들에 관심이 추가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남한 여성을 보도 대상으로 삼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남한 사회의 가부장성을 비판하고 계급적 착취로 인한 빈곤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삶의 처지와 사회적 지위를 다루는 글들이 대부분을 이루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양상에 주목한 자료들도 있다.

여성문제는 인신매매 등 여성 인권문제를 다룬 논의도 눈에 띄고,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비롯해 기지촌의 문제와 성매매로 연결해 다루고 있다.

③ 『근로자』

<표 4> 『근로자』 남한 사회문제 분류

	55	57	62	63	64	78	79	80	84	85	88	91	92	97	99	계(%)
DB 등록 전체 권수	1	1	1	1	4	1	2	1	2	1	1	1	1	1	1	20
빈곤	1			1	2		1		1			1		1		8(36.4)
노동								1							1	2(9.1)
보건/공해						/1										1(4.5)
생활양식/ 종교/매춘		1//	1//		1/1/		/1/		2//		1//		1//			7(31.8) /2(9)
이민, 인력 수출/입양										1/						1(4.5)
인권/부패/ 사고/범죄						1///										1(4.5)
문건 총계	1	1	1	1	4	2	2	1	3	1	1	1	1	1	1	2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론잡지인 『근로자』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중에서도 그 중요도가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남한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근로자』는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해 1권당 1개의 글을 게시하는 정도로 양적으로는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1970~1980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소수의 글만이 남한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빈곤문제가 3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본주의와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생활양식의 변화가 31.8%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노동문제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남조선문제』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44년간의 잡지 중에서 불과 20권만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DB를 근거로

『근로자』가 다루고 있는 남한의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기타 잡지

앞에서 정리한 『남조선문제』, 『조선녀성』, 『근로자』 외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과학』, 『조선녀성』, 『국제생활』, 『인민교육』, 『교원선전원수첩』, 『조선사회민주당』, 『인민』, 『남조선문제론문집』, 『조선예술』, 『사회과학론문집』에서도 일부지만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볼 수 있다.

이들 잡지에서 다룬 주제는 인권(11), 빈곤(8), 종교(4), 보건(4), 생활양식(2), 입양(2), 범죄(2), 노동(1), 공해(1), 매춘(1), 인력수출(1) 등이다. 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자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이 많고, 빈곤문제를 다룬 자료는 1950년대와 1970년대 초가 많다. 『교원선전원수첩』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 『국제생활』은 종교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통일교를 비난하고 있고, 『조선사회민주당』은 인권문제를 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 잡지에서 다룬 남한의 사회문제는 자료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개별 잡지의 성격이나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경향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2)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주요 잡지별 특징

(1)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잡지별 보도 특징

앞에서 보았듯이 남한의 사회문제 중에서 북한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빈곤문제, 노동문제, 보건문제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빈곤문제라는 하나의 큰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북한에서 남한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잡지인 『남조선문제』, 『조선녀성』, 『근로자』에서 남한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게재한 대표적인 글을 중심으로 비교하도록 한다.³⁾ 이렇게 특정 글을 뽑아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 개의 잡지에 실려 있는 글들이 각 잡지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각 잡지에 실린 다른 글들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① 빈곤문제

3개의 잡지를 보면, 『근로자』는 다른 글들에 비해 많은 통계를 동원하며 구체적이고 이론적으로 남한의 빈곤문제를 분석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녀성』은 자극적인 ‘사실’들을 통해 남한의 빈곤문제를 선전하고 있으며, 『남조선문제』는 『근로자』에 비하여 압축적으로 남한의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3개의 잡지 모두 비슷한 맥락의 서술을 진행하고 있으나, 잡지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 서술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서술과 인식이 남한의 정치경제적인 구조를 반영한 가장 체계적인 서술인 것으로 보이며, 『남조선문제』나 『조선녀성』은 『근로자』를 각자의 잡지 성격에 맞게 서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각 잡지별로 소개하는 내용은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② 노동문제

3개의 잡지 모두 남한의 노동현실을 심하게 비난하고 있다. 『남조선문제』는 남한의 노동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조선녀성』은 다른 잡지보다 여성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자』는 『남조선문제』와 비슷한 사례들을 자본주의체제의 모순, 남한정부와 외국 독점자본문제 등과 연결하여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③ 공해문제

3개의 잡지 모두 남한의 공해문제를 심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각 잡지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녀성』이 남한의 공해문제를 자극적인 사례들을 나열하며 선전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남조선문제』는 공해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치 등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는 『남조선문제』보다 한 걸음 나아가 보다 자세한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공해 원인의 책임자로서 남한정권을 연결하여 남한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점이다.

(2)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의 성격

『근로자』는 각 글들이 평균 4.5쪽 이상의 비교적 긴 글들이라는 점에서 『남조선문제』나 『조선녀성』보다 무게 있는 글이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와 『남조선문제』는 각 글의 필자가 명확한 데 비해, 『조선녀성』은 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근로자』와 『남조선문제』가 보다 전문적인 필진을 통해 글을 생산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녀성』은 사회문제로 분류된 글의 60% 이상이 1쪽의 길이로 간단하게 남한의 사회문제를 서술하고 있고, 나머지 약 40%도 평균 2쪽 정도에 불과하다. 『남조선문제』는 1970~1980년대의 글들이 평균 2.3쪽의 길이로 되어 있는데, 1970년대는 평균 2.6쪽으로 1980년대의 2.1쪽에 비해 길이가 길었다. 이상의 서술과 같이 글의 길이로만 보아도 『근로자』가 가장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선녀성』은 주로 선전에 활용하기 좋은 ‘사실’ 소개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표적 잡지 3종의 서술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남한 사회문제 보도는 각 잡지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에서는 남한의 사회문제를 대하는 근본 시각이 학술적 연구이기보다는 당의 정책적 관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종류의 잡지 중에서 가장 이론적인 『근로자』는 나름대로 학술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비슷한 내용과 평가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성격의 측면을 크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근로자』를 제외한 『남조선문제』와 『조선녀성』은 정책적 보도 또는 선전선동적 목적에 더 가까운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잡지 중에서 『근로자』는 남한의 사회문제를 정치경제적 구조와 연결하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남한의 사회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남조선문제』라고 생각된다.

3) 북한의 남한 사회문제 보도 내용 분석

(1) 소분류에 따른 분석

북한의 남한보도에서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양적 비중이 매우 큰 편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비판이 가장 자극적으로 집약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남한의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북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남한의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빈곤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가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모순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 빈곤 문제인 만큼, 북한의 비난이 이 문제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표 5> 『남조선문제』 『조선여성』 남한 사회문제 분류

	『남조선문제』	『조선여성』	합계
빈곤	72	53	125
노동	50	2	52
보건	22	7	29
공해	12	3	15
여성	17	36	53
생활양식	11	0	11
종교	8	0	8
매춘	8	0	8
이민, 인력수출	10	2	12
해외입양	5	2	7
인권	14	1	15
사고	10		10
부패	7		7
범죄	17		17
합계	263	106	369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의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은 빈곤문제, 노동문제, 보건과 공해문제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외에 남한의 생활양식 변화와 종교, 외국인관광 매춘, 이민과 인력수출, 해외입양, 범죄 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과 보건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함께 엮어서 남한의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들 중에서 인력수출문제는 남한에서는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북한의 관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한사회에서는 인력수출문제를 남한경제 확대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앞의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빈곤문제가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빈곤문제는 북한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이었고, 노동문제와 보건문제 등으로 가면 각 사회부문별로 관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사회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범죄, 공해, 생활양식의 변화와 해외입양 문제 등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 외의 문제들은 북한이 남한사회를 비난하는 데는 선전 효용이 컸지만, 그들이 가졌던 ‘남조선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만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니었다.

(2) 키워드에 따른 분석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면 조금 다른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 각 자료별로 한두 개의 키워드를 찾고 이를 통해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보면, 소분류

를 통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물론 빈곤문제라는 자본주의 남한의 사회문제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같지만, 구체적인 목적과 비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키워드로 선택된 것을 기사 비율의 크기 순서대로 정리하면, 정권에 대한 비난(정권, 박정희, 전두환), 질병과 병원비로 인한 고통, 빈곤한 여성과 어린이의 비참한 생활, 도시빈민의 생활(주택난 등), 빈부격차(빈익빈부익부 현상), 외래문화로 인한 사회의 타락상, 공해, 인력수출, 해외입양, 범죄와 사고(교통사고, 조난사고 등), 농촌빈민 순서가 된다.

이상의 키워드를 통해보면, 북한은 남한의 사회문제를 남한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남한사회의 빈곤으로 인한 비참한 생활상, 질병으로 인한 고통, 도시빈민과 여성·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선전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사회의 빈부격차를 강조하고, 남한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남한사회의 공해 확산, 인력 수출, 교통사고 증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도시에 비해 남한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의 경제성장을 의식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한의 사회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의 어린이 해외입양, 기생관광과 같은 매춘의 증가, 고학생들의 어려운 생활, 자살, 매혈 등과 같은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러한 사건사고를 남한사회의 문제로 선전하는 데 치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남한 출판물에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가 11,000명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외신자료들은 그 수가 무려 60여만 명을 헤아린다고 전하였다”는 식이다.⁴⁾ 즉, 북한의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은 개별적인 부정적 사건에 대한 확대 과장을 통해 남한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북한주민들이 갖도록 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3. 북한의 남한 사회문제 보도 특성

1) 보도 동인

북한의 남한보도는 매우 뿌리가 오래 되었다. 해방 이후, 특히 6·25전쟁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남한출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1960년대까지는 남한경제가 절대빈곤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남조선혁명’이라는 목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를 본 연구에서 DB로 구축한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1960년대의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가면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 필요성은 ‘남조선혁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점차 북한 내부의 필요성이라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1970년대 초에 북한정권이 ‘남조선혁명’ 노선에서 ‘후계체제 구축’과 남북한 공존을 전략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 시점에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보도 목적은 ‘남조선혁명’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4) “남조선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만연된 위험지대,” 『국제생활』, 3권 3호(1986), 23쪽.

안정성' 유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한경제의 성장이 크게 나타나고, 반면에 북한경제의 침체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 목적은 남한과의 경쟁 패배로 인한 체제 내부의 결속력 약화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이 같은 모습은 남한사회의 빈곤과 노동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과 더불어 남한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 동인은 북한주민에 대한 계급교양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정권은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소재를 찾아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방향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남한 자본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인 미국 등 외세에 대한 비난이었다.

2) 보도 주제 선정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적어도 1970년대부터는 '북한요인'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보도 동인에서 시작된 북한의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는 정책적 목적의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근로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학술적인 수준의 관심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남조선문제』나 『조선녀성』에서는 학술적인 성격이나 목적을 부여하기가 곤란하다. 『남조선문제』나 『조선녀성』은 철저하게 정책적인 목적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물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과학』, 『인민』에서 남한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글들에서는 학술적인 서술 경향도 볼 수 있지만, 그 자료의 수가 소량이기 때문에 — 이번 데이터베이스 작업 결과를 가지고 — 북한의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를 학술적 성격의 연구 방향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과학』, 『인민』과 같은 잡지는 남한 신문의 날짜를 예시해가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인용하는 등⁵⁾ 일반적인 대중잡지와는 서술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적어도 1970년대부터는 ‘정책적 필요’에서 진행되었다고 정리해도 무리가 없다.

3) 보도주제의 추이

시기별 보도경향은 남한의 사회문제에 관한 글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은 글을 게재하고 있는 『남조선문제』와 『조선녀성』을 통해 시기별 특성을 살펴본다.

두 개의 잡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기적 특성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남한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주제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남조선문제』에서는 1970년대 전반에는 잘 다루지 않던 주제인 생활양식과 매춘, 인력수출과 해외입양, 인권과 부패·사고·범죄문제가 1970년대 후반에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이 『남조선문제』에 비해 『조선녀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조선녀성』이란 잡지가 가진 성격 — 주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관심 — 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김정선, “남조선 역대 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어린이 수출,” 『력사과학』, 169권 4호(1998).

<표 6> 『남조선문제』 『조선녀성』으로 본 남한 사회문제 보도 추이

	『남조선문제』			『조선녀성』			총계
	71~80	81~88	소계	53~65	79~90	소계	합계
빈곤	31	40	71	16	33	49	120
노동	25	23	48		2	2	50
보건	5	16	21		7	7	28
공해	4	8	12		3	3	15
여성	7	9	16	11	9	20	36
생활양식	5	5	10				10
종교	6	0	6				6
매춘	3	5	8				8
이민, 인력수출	5	5	10		2	2	12
해외입양	2	3	5		2	2	7
인권	5	9	14				14
사고	4	6	10				10
부패	4	3	7				7
범죄	4	13	17				17
합계	110	145	255	27	58	85	340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남북관계 변화나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와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1972년에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전에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고, 북한의 김정일이 후계체제 계승에 성공한 1970년대 이후 북한체제에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남북관계나 북한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남한의 산업화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71년에 비해 1976년에는 2.84배, 1981년에는 6.28배, 1986년에는 9.29배, 1990년에는 21.7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남한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표 7> 1971~1990년 남한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달러표시)(단위: 달러)⁶⁾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인당 국민총소득	291	322	404	559	607	825	1043	1443	1693	1660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인당 국민총소득	1826	1927	2113	2300	2355	2702	3402	4548	5556	6303

비판의 관점을 변화하게끔 만든 것으로 보인다.

즉, 1970년대 후반의 남한경제 고도성장과 남한사회 절대빈곤의 감소가 북한의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과 선전에 일정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남조선문제』나 『조선녀성』이 남한의 빈곤문제를 단순하게 절대빈곤의 관점에서 다루기보다는 ‘빈부차이’(빈익빈부익부현상)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다.⁷⁾ 즉, 남한경제가 성장하면서 재벌과 빈민의 빈부차이, 교통사고의 증가, 공해문제의 증가, 해외 인력 수출 등이 북한에게는 남한사회를 비판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1970년대 후반부터 『남조선문제』와 『조선녀성』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4) 보도주제의 메시지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가 가지는 주제의 메시지는 뚜

6)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

7) 『남조선문제』, 1975년 10호(빈부차이), 1976년 4호(빈부차이)·9호(교통사고), 1977년 12호(인력 수출), 1978년 2호(공해)·6호(빈부차이)·7호(서양문화 유입)·10호(부패-아파트분양문제)·11호(교통사고), 1980년 1호(공해), 1981년 6호(빈부차이-호화주택)·7호(빈부차이)·8호(빈부차이-재벌), 『조선녀성』, 1981년 12호(빈부차이), 1986년 5호(공해).

렸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과 강도,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남한정권과 자본가 등 지배 계급에 대한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과 선동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5) 보도의 활용

(1) 국내정치 활용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가 북한에서 이루어진 목적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 후반에는 ‘북한 내부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남조선혁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였고, 본 연구에서 자료가 집중되고 있는 1970년대 이후에는 북한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한정권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한경제의 성장과정에 대응하여 대남혁명보다는 체제 안정과 후계 세습에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북한경제가 1970년대 이후 발전이 정체되는 상황도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은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 시스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먼저 『근로자』와 같은 당 이론기관 연구가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면, 『남조선문제』는 『근로자』를 바탕으로 남한문제에 대한 전문연구 잡지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남조선문제출판사(조국통일사)에서는 주로 남한 신문을

가지고 『남조선문제』에 필요한 남한의 사회문제를 정리하는 글을 만들었다고 한다.⁸⁾ 그리고 이 과정은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허용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이 정한 정책대로 서술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었다. 또한 남한의 사회문제보도는 계급교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증언⁹⁾으로 볼 때,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의 목적은 북한 국내 정치에서의 활용이라는 의도가 더 컸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부문별 대중잡지는 『근로자』와 『남조선문제』를 가지고 재가공하여 선전선동 자료로 활용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남정책 활용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가 대남정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남한 빈곤문제에 대한 보도나 노동문제에 대한 보도가 실제 남한 상황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의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실제 남한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보도로 대남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북한정권이 ‘과악하고 있는 남한정보’와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선전’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남한관련 ‘참고자료’를 발간하고, 『남조선연구』는 참고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¹⁰⁾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조선혁명’이라는 목표를 걸고 있었기 때

8) 탈북자 정철현(북한 노동당 통일선선부 근무) 인터뷰(2009. 4. 15).

9) 탈북자 정남수 인터뷰(2008. 12. 26).

10) 탈북자 정남수 인터뷰(2008. 12. 26).

문에 남한주민에 대한 선전선동의 자료로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상관관계 분석 - 『남조선문제』와 『조선여성』을 중심으로

(1) 보도 동인과 주제

1950년대를 정리한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조선여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조선여성』이 다루고 있는 남한의 사회문제는 ‘빈곤’과 ‘여성’문제가 각각 50%씩이다. 이것은 『조선여성』이란 잡지의 특성이 ‘여성’문제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여기에서 다루는 ‘여성’문제라는 것이 ‘빈곤’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53년 이후, 즉 6.25전쟁이 정전상태에 들어간 이후 북한정세는 기본적으로 ‘전후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물론 북한정권이 내세우는 구호에는 ‘남조선혁명’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주도세력에게는 북한내부의 안정이 가장 급선무였다. 따라서 전쟁이후 시점인 1950년대의 남한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주제는 ‘빈곤’문제와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 북한정권이 ‘남조선혁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높이게 되었다. 이 시기(1962~1965년)에 『조선여성』에 나타난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빈곤’이 68.8%, ‘여성’이 31.3%이었다. 즉, ‘남조선혁명’이 주요 동인이 되는 시기에도 보도 주제는 ‘빈곤’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의 상관관계를 『남조선문제』를 통해 보면, 전체적으로 ‘빈

곤'(28.2%)과 '노동'(22.7%)이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반을 보건·공해·여성·생활양식·종교·인력수출과 입양·인권·사고·범죄가 비슷한 비율로 점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의 특징으로는 '빈곤'과 '노동'을 제외한 다른 주제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정권이 '남조선혁명'과 '북한내부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하던 197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관심이 '빈곤'과 '노동'에 맞춰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를 『남조선문제』와 『조선녀성』을 통해 보면, 『남조선문제』는 '빈곤'문제(27.6%)와 '노동'문제(15.9%)가 43.5%로 1970년대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녀성』에서도 '빈곤'문제를 다루는 비율이 57.5%로 1960년대에 비해 작은 차이이지만 감소했다.

가장 뚜렷한 추세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다룬 『조선녀성』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빈곤'문제가 13.6%로 감소하고, '여성'문제가 72.7%로 증가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보도 동인'과 '보도 주제'의 상관관계를 정리해보면, 보도의 동인이 북한 요인인 남한 요인인 상관없이 '빈곤'문제와 '노동'문제에 최대의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의 감소는 남한경제의 성장이라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8> 시기별 요인과 주요 관심

- 1950년대 - 북한 요인 - 빈곤문제
- 1960년대 - 남한 요인 - 빈곤문제와 노동문제
- 1970년대 - 남북한 요인 - 빈곤문제와 노동문제
- 1980년대 - 북한 요인 - 빈곤문제와 노동문제(소폭 감소)
- 1990년대 - 북한 요인 - 빈곤문제 대폭 감소

<표 9> 『남조선문제』 남한 사회문제 분류(1970년대)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계(%)
빈곤	1		2	3	1	2	2	11		9	31(28.2)
노동			2		3		1	9		10	25(22.7)
보건	1		2		1			4		1	9(8.1)
여성				2			1	1		3	7(6.4)
생활양식			2		1	2	2	6		1	14(12.7)
이민					1	1	2	2		1	7(6.3)
인권						3	2	8		1	17(15.3)

* 보건(공해 포함), 생활양식(종교/매춘 포함), 이민(인력수출/입양 포함), 인권(부패/사과/범죄 포함)

(2) 보도 동인과 메시지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관심은 보도의 동인이 ‘북한 내부 요인’이든 ‘남한 요인’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남한이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북한이 선택하는 소재가 다양해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소재나 주제가 선택되어도, 북한정권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부정적 메시지’였음은 일관된 것이었다.

(3) 보도 동인과 활용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관심은 보도의 동인이 ‘북한 내부 요인’이었는데, ‘남한 요인’이었는데 그에 따라 그 활용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북한 내부 요인’이 동인인 경우에는 ‘빈곤’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남한 요인’이 동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한 비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정권의 보도 동인이 ‘남한 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남조선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문제의 수준은 ‘대남정책’에 활용하기보다는 ‘북한 내부 정치’ 활용에 맞는 정도였다.

(4) 보도 주제와 메시지

북한정권이 관심을 가진 남한의 사회문제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면 빈곤·노동·보건·공해·여성·생활양식·종교·매춘·이민과 인력수출·입양·인권·부패·사고·범죄로 소분류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남한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북한정권의 관심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이후까지 거의 일관된 모습이며, 다른 메시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의미에서는 남한의 빈민과 노동계급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동정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특히 1990년대까지 외부 소식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북한정권이 제공한 남한의 사회문제를 통해 남한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추론을 하면 북한주민들은 공해나 이민, 인력수출, 인권, 부패, 사고 등의 소식에서 자신들의 체제와 남한을 비교해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시대에 따라 왜곡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북한정권이 선전에 활용한 남한의 사회문제는 전체적인 사회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남한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하나의 단면이었다는 측면도 있다.

(5) 보도 주제와 활용

빈곤·노동·보건·공해·여성·생활양식·종교·매춘·이민과 인력수출·입

양·인권·부패·사고·범죄 등 남한의 사회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는 대부분 ‘북한 내부 정치’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 잡지에 실린 자료의 수준이 ‘연구’보다는 ‘선전’에 가깝고, 실제 목적도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보도 메시지와 활용

남한의 사회문제 보도를 진행한 북한정권의 의도 자체가 부정적인 메시지였고, 그 활용은 ‘북한 내부 정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물론 부정적인 메시지의 일부는 ‘대남정책 활용’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도의 수준 등을 보았을 때 ‘북한 내부 정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7) 보도 동인과 지속성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 동인은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 시대별로 북한정권이 처한 정치경제적·대외정세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중점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후반에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북한 내부 요인’이 중요했고, 1960년대에는 다시 ‘남한 요인’을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북한 내부 요인’과 ‘남한 요인’이 모두 주목을 받고,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 내부 요인’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8) 보도 주제와 지속성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남조선문제』를 보

면 그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는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주제는 빈곤문제(28.2%/27.6%)이다. 이어서 관심을 가진 주제는 노동문제(22.7%/15.9%)이고, 그 다음은 보건문제(8.1%/16.5%)이다. 이것은 어느 사회든지 가장 큰 사회문제의 원인이 빈곤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고, 북한체제가 가진 이념적 성격이 자본주의 남한사회의 ‘빈곤’문제를 가장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빈곤문제에 이어져 있는 노동문제도 사실은 빈곤문제의 다른 측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보건문제 역시 빈곤문제의 또 다른 얼굴이다. 본 연구가 구축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당국이 지속적으로 비난해온 문제가 남한의 자본주의 모순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빈곤문제이다. 즉, 북한의 인민들이 기아에 빠지는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북한이 남한사회의 빈곤문제를 선전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빈곤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는 근본적 문제이다.

하지만 남한의 빈곤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1990년대부터는 그 비중이 크게 작아졌다(13.6%: 『조선여성』 자료). 1970년대 후반부터 남한 경제의 성장이 뚜렷해지면서 북한은 남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문제들이 공해, 생활양식의 변화, 해외입양과 매춘, 각종 범죄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남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사회의 문제점을 비난하는 영역을 확대해갔다.

남한사회의 근본적 문제(빈곤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더불어 그 안에서도 변화는 이루어졌다. 즉, 빈곤문제에 대한 비난이 1970년대 후반부터 ‘절대 빈곤’에서 ‘빈부차이’로 초점을 이동한 것은 남한

사회의 경제 발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남한사회의 변화와 일정하게 연동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 보도 메시지와 지속성

남한의 사회문제 보도를 통한 북한정권의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남한의 사회문제 보도를 진행한 북한정권의 보도 동인과 보도 주제 선정과 마찬가지로 보도 메시지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10) 보도 활용과 지속성

남한의 사회문제 보도를 북한정권은 ‘북한 내부 정치’에 활용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최근까지 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남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함으로써 북한 내부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제하게끔 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활용은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맺음말-북한의 남한 사회문제 보도 특징

이번 DB 작업을 통해 북한의 잡지들이 남한 국내정치나 통일문제 등에 비해서는 작지만,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북한의 잡지들이 남한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 잡지들 중에서 남한의 사회문제에 양적으

로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남조선문제』, 『조선여성』, 『근로자』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잡지들이 남한의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남한의 빈곤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는 노동문제나 보건문제와 함께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인데, 특히 대부분의 다른 사회문제들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잡지들이 남한의 ‘빈곤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잡지들은 남한경제가 성장한 1980년대 이후에는 빈곤문제 이외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북한정권은 남한의 빈곤을 선전하면서도, 남한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의 신문 등을 자료로 활용하면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의 변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잡지들은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해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의 목적과 주제 선정, 보도 주제의 메시지와 활용 모두가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 비난 선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 잡지들이 진행한 남한의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은 그 비판의 사례가 자극적으로 과장되고 개별 사례를 전체적인 것으로 과장 선전하고 있지만, 개별적 사실로는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남한자본주의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빈곤문제, 노동문제, 보건문제, 공해문제, 여성문제, 범죄문제, 인권문제 등의 다양한 많은 사회문제가 있었다. 이들 문제들은 2000년대에 들어선 현재에도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 어쩌면 개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집할 때는 영원히 계속될 문제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남한의 사회문제를 북한정권은 잡지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선전

하는 데 충분히 활용하였다.

북한과 같이 통제된 사회에서 이 잡지들에 게재된 글들이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특히 극단적이고 범죄적인 수준의 사회문제에 대한 과장된 선전들을 북한주민들이 비판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잡지에 실린 글들은 북한의 대남관련 조직에서 남한에서 발생한 각종 사회문제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잡지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남한의 사회문제’들은 남한사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면서 화제와 비판을 일으켰던 내용들로 추정되는데, 북한 정권은 이들 자료를 선전용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현재까지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간물 선전 매체들이 게재하고 있는 내용을 북한정권 핵심부의 남한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접수: 6월 28일 / ■ 채택: 8월 27일

참고 문헌

1. 북한자료

『교원선진원수첩』

『국제생활』

『근로자』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남조선문제론문집』

『남조선문제』

『력사과학』

『사회과학론문집』

『인민교육』

『인민』

『조선여성』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예술』

탈북자 정남수 인터뷰(2008. 12. 26).

탈북자 정철현(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근무) 인터뷰(2009. 4. 15).

2. 국내자료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서울: 시대정신, 2005).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서울: 자료원, 2000).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서울: 고현출판부, 2007).

박영자, “북한 일상생활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여성생활을 중심으로,” 평화문

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6권 2호(2004).

서동의, 『인민이 사는 모습』 1, 2(서울: 자료원, 1995).

서상철,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서울: 공동체, 2007).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
남, 1995).

A Study about the Reports of South Korean Social Issues in North Korea's Magazines

Lee, Jucheol(KBS)

North Korean magazines have had great interest about social issues of South Korea. These magazines had shown the greatest interest about the issue of poverty in South Korea. The issue of poverty is closely related to the other social issues.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magazines of North Korea raised the issue of poverty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the 1980s, North Korea's magazines have interested in the various other social issues. North Korea's magazines have made propaganda well enough against social issues of South Korea. Topic selections and contents of reports were related to the attacks South Korea.

While North Korea's magazines have exaggerated individual cases and propagandized these, they had a factual basis to some extent. Through the magazines, the North Korean regime took advantage of the social issues of South Korea politically. Writings published in magazines have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perceptions of North Koreans

about South Korea. But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contents of North Korea's magazines are the same to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ward South Korea.

Keywords: North Korea, South Korea, magazines, social issues, poverty, propaganda